

#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소고: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지향하며>에 대한 토론문

윤지원(창신대학교)

이 논문은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 주소를 살피고,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일상생활의 미디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사회의 기초 역량이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보편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문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개념 정리부터 현황 파악, 제언까지 꽤 많은 양의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과묵한 식견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 우문을 드리게 되더라도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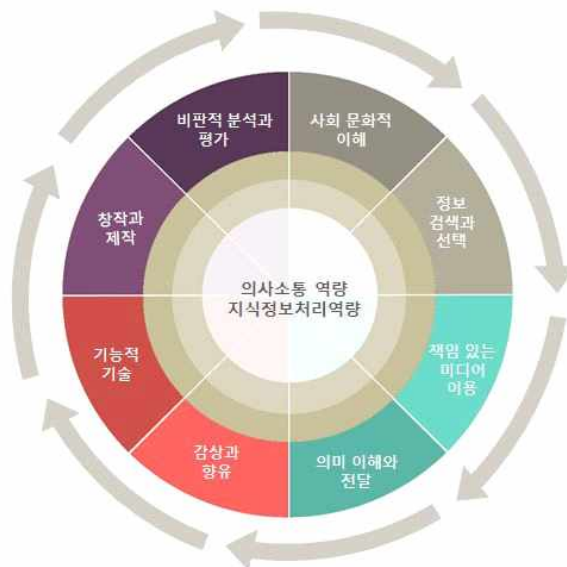
- 연구자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대중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기술 활용에 초점을 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오늘날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광의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참여하는 능력이고, 그에 반해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존의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에 미디어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속성과 네트워킹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과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 즉 시티즌십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사성을 가진 단어로 미디어의 범주와 활동 영역(미디어 리터러시: 온오프라인,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좀 더 보편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또한, 연구자께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정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란 <그림 1>과 같이 이해와 표현 영역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접근 → 이해·해석 → 향유·평가 → 생산·참여’하는 4 단계로 개념화하였습니다.



<그림 1> 선행연구 기반 한국어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듣기·읽기의 이해 영역과 말하기·쓰기의 표현 영역에서 모두 활용되며, 한국어로 된 미디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나아가 자아 성찰과 적용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선 외(2015)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현재의 개념에서 ‘정보 검색과 선택, 윤리(책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림 1>에 따르면, 마치 4단계의 절차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순서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역량, 기초 학습 요소 및 수행 목표의 관계도(정현선 외, 2015)

## 둘째, 한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및 대안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표준모형, 한국어능력시험,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 설정한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미디어 자료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가운데 문법 중심, 말하기 중심,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대학 부설 기관 세 곳의 4, 5급 전 영역을 대상으로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시사성이 있는 사회 관련 주제나 전문적인 지식, 감상 목적의 심미적 소재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미디어 텍스트를 학습 자료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4급과 5급의 모든 단원에 미디어 텍스트가 도입, 본문, 연습, 과제 활동에 제시될 정도로 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그림 8>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4단계를 기준으로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이 중·고급 단계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리터러시 역량으로 교수·학습되고 있었고, 생산과 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에 대해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능동적인 미디어 제작을 통한 의사소통 주체로 참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지향하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이며, 미디어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측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윤리적 측면에서의 공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각주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미디어 윤리성,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이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등에 대한 연구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본 발표문은 실제 수업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 한계점을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연구의 완성도도 높고, 노력의 흔적이 돋보입니다) '이해와 해석'에서 나아가 직접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미디어 텍스트와 과제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개선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매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뉴미디어 텍스트를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안으로 '탐구하고 참여하는 미디어 한국어 수업'에 대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가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발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